



“나누면 웃음꽃이 활짝 피요”



4월 18일 시립노인요양원에서 열린 수락산 봄꽃축제에 참가한 가족들이 연꽃모자를 만들고 있다.

“꽃처럼 아름다운 나눔의 축제이네요. 오랜만에 등산 왔다가 축제에 참가하여 부처님의 향내음을 맡으니 너무 좋아요”
4월 18일 벚꽃 철쭉 영상홍 모란이 흐트러지게 핀 노원구 상계동 시립노인요양원 앞마당. '나눔의 수락산 봄꽃축제'에 참가한 김민주 보살(42, 서울 상계동)은 남편, 두 아들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기원 연등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 보살네는 연등을 완성한 뒤 모든 가족이 돌아가며 사

랑의 메시지와 기원내용을 컬러 펜으로 꼼꼼히 적은 뒤 요양원 입구에 매달아 등불을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 산하시설 직원과 진각종 신교도, 서울청년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오전 11시부터 판을 벌인 체험마당의 단주, 모자등, 소원등,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코너에는 가족들로 붐볐다.
진각복지재단이 본지 나눔의 손잡기운동 캠페인과 연대해 연 제 1회 봄꽃축제에는 수락산 등산

나눔의 수락산 봄꽃축제 현장

진각복지재단·나눔의 손잡기운동 연대 1만여명 참가...시립노인요양원에 성금

객등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오후 2시부터는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댄스동아리 SARS의 흥겨운 댄스무대를 시작으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스포츠댄스, 신내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 비로자나 힙합 동아리팀의 힙합공연 등 오프닝 공연을 펼쳤다. 이어 열린 수락산 가요제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장기를 뽐냈다.
오후 6시에는 요양원 뒷마당에서 BBS백팩가요 진행자이며 가수인 이정열씨의 사회로 본 공연의 막이 오르면서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야단법석팀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열정적인 난타공연이 이어지고, 국악관현악단 오느름의 가야금 3중주와 피리 3중주가 수락산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를 직접 불러 인기절정에 오른 국립창극단원 박애씨의 남도창에 참가자들은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어우러졌다.

마지막 피날레는 가수 안치환씨가 장식했다. 안씨가 '내가 만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2곡을 노래하자 시민들은 앙골을 연호했다. 분위기에 고무된 안씨는 "관객들과 수락산 봄꽃축제의 발전과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앙골곡을 부르겠다"며 자신의 히트곡 '위하여'를 열창했다.
1부 공연순서에 이어 이날 행사를 후원한 본지 위원장 국장이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대해 관중들에게 설명하고, 나눔 저금통을 시립노인요양원에 전달했다.
진각복지재단 이사 회장 정사는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김원우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도와주세요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결연 후원자를 찾는다. 기금후원금은 성북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 긴급지원, 무료 급식, 응급진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후원물품으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이다. 후원계좌번호 : 우리은행 048-162860-13-208 (예금주 :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02)929-4663

■ 나눔의 손잡기 동참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성지관음회(회장 신현준) 저금통-50개 스티커-100장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정사(주지 도성스님) 스티커-200장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장심사 스티커-50장
- 충북 단양면 대강면 연화사(주지 법화스님) 스티커-200장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법화사(주지 보정스님) 스티커-100장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선만암(주지 만의스님) 스티커-15장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찬불동요 CD, 군법당 20곳 보급

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전달



6월경 영어로도 제작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20세트가 군법당 20곳에 전달됐다.
조계종 포교원장실에서 4월 20일 열린 1차 전달식에서 풍경소리 대표 성행 스님(의왕 정계사 주지·사진 가운데)은 "현대불교신문과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개중인 '어린이 청소년법회에 찬불동요 CD와 테이프를 보냅니다' 캠페인을 전개중"이라며 "3월 한달간 동참

해준 불자들의 이름으로 군법당에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20세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장 도영 스님(사진 왼쪽)은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힘든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찬불동요를 만들고 있는 좋은 벗 풍경소리에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 포교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불자들의 동참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행 스님은 "영어로 된 찬불동요 CD를 6월 중순까지 만들어 어린이집, 유치원, 해외사찰에 널리 보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영 스님은 군법교위원회 부위원장 계성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사진 오른쪽)에게 군법당에 보낼 풍경소리 찬불동요 CD와 동요집 20세트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희망·자비의 등' 밝혀 주세요

을 부처님 오신날에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비의 연등'이 걸린다. 또 봉축행사 대신 외관을 불교미지기를 꾸민 봉축버스 가 무료로 운행된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이사 해자, 도선사 주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5월 15-27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제1회 소아암 어린이 돕기 불교문화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행사장인 롯데월드와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를 연결하는 봉축버스 4대가 운행된다.
불교문화 체험전은 15일 오후 7시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불교미술품, 불구, 전통등, 스님의 일상용품 등 전시회와 개구 체험, 단청문양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선바자회, 연꽃음악축제, 불교문화 체험 및 공연 등의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연등' 달기 캠페인. '은누리에 자비-희망-희망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거리모금, 현장 홍보관 운영, 소아암협회 부스 설치 등 비록 연등을 민속박물관에 내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등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 기업,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4월 20일부터 보시를 받을 계획이다.
전야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연꽃음악축제'는 5월 15일 오후 7시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다. 도선사와 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며, '산사에서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음악회, 어울림 마당 등이 펼쳐진다.
불교무, 선무도, 불교 관현악, 네팔 전통음악 등이 선보이는 불교문화 공연은 민속박물관에서 행사 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열린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 곳곳에서는 단청 그리기, 불상 조형, 전구, 불교놀이, 합창주 만들기, 연등 만들기, 관육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이웃사랑 자선바자회'는 5월 12-14일 도선사의 특별후원을 받아 도선사 경내에서 열린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민속박물관에 걸리는 한등 한등에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의 구체적 실천 의지가 담기게 될 것"이라며 "자비의 연등 달기 캠페인과 불교문화체험전에 불자들이 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연등 접수 (02)736-5583 박봉영 기자

소아암 어린이돕기 행사 다채

5월17~27일, 잠실 민속박물관

봉축버스 운행...불교문화 체험전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

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사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현물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등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